

『傷寒論』 제 24조문 중 “先刺風池·風府”에 대한 문헌적 연구

현고은·윤창열*

『傷寒論』24條文中 關於“先刺風池·風府” 文獻的研究

玄杲恩·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研究 傷寒論 “太陽病 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風府 却與桂枝湯則愈.”, 風的特性, 奇經八脈與風池, 風府穴, 今得出如下結論.

風爲陽邪 其性輕揚發泄 易襲陽位 風邪易入人身上部及頭部. 風池, 風府穴在人體上部及頭部, 風邪鬱滯風池, 風府穴. 風池風府穴是奇經八脈中之一穴. 風邪侵入人身經脈, 其風邪溢滯奇經八脈, 故先刺奇經八脈之中一 風池, 風府穴 散鬱滯風邪 而後服桂枝湯 卽病愈. 現在感冒治療及豫防 多用此二穴 效果良好.

Key Words : 傷寒論, 風池穴, 風府穴, 奇經八脈

I. 서론

『傷寒論』은 後漢 말기에 張仲景이 지은 『傷寒雜病論』의 일부로서 外感熱病疾患의 理法方藥에 대해 논술한 醫書이다. 『傷寒論』은 東漢以前的 臨證醫學에 대하여 전면적인 총결을 한 것이며, 아울러 정미로운 논술로 인하여 韓醫學의 辨證論治原則이 확립되었고, 여기에는 外感熱性病 및 各種內科雜病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한 病證方法과 효과가 많은 治療수단이 실려 있다.¹⁾

이와 같이 韓方臨床醫學의 기초를 닦아 醫聖으로 추존되고 있는 張仲景의 『傷寒論』에서의

治療方法是 대부분이 方劑로 인한 치료이다. 그러나 鍼灸치료도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몇 차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傷寒論』 제 24조문인 “太陽病 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風府 却與桂枝湯則愈”에서의 風池穴과 風府穴의 刺鍼이다.

韓醫學에서 最高의 고전으로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에서 인정받고 있는 『傷寒論』에서 風池穴과 風府穴 刺鍼을 이용한 治療가 기재되어 있으나, 역대 醫家들의 傷寒論 주석서에서는 風池穴과 風府穴에 刺鍼하는 이유를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여도 生理·病理의 기전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難經, 奇經八脈考 등의 여러 醫書에 의거하여 韓方 生理 및 病理의 기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ony@djju.kr

1) 洪元植, 尹暢烈 :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163 ~ 164

II. 本論

1. 『傷寒論』 제 24조문 “太陽病 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風府 却與桂枝湯 則愈” 분석

『傷寒論』24조문에서는 “太陽 中風證에 처음 桂枝湯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心煩증상만 더해지고 병세가 풀리지 않는 것은 먼저 風池穴과 風府穴을 刺鍼한 후에 다시 桂枝湯을 복용하면 낫는다”²⁾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反煩不解’는 表邪가 너무 심해서 邪氣와 正氣가 심하게 抗爭하여 풀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는 기세로 桂枝湯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藥力보다 病이 심해서 그러한 것이다. 당연히 表證도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煩은 熱悶한 형상을 나타낸 것이지만 內熱로 인한 煩과는 다르다. ‘先刺風池風府’는 經脈에 鬱滯된 邪氣를 泄하고자 한 것이다. ‘却與桂枝湯則愈’는 아까는 藥만 썼는데 지금은 鍼과 藥을 같이 써서 藥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치료한 것이다. 즉, 太陽中風證에 桂枝湯을 복용한 것은 정확한 治法이므로 약간 汗이 나면서 풀리게 된다. 그러나 藥을 한번 복용하고서 오히려 心煩不安이 나타난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藥이 證에 맞지 않아 內傳하여 化熱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表邪가 비교적 왕성해서 藥力이 미치지 못하고 正氣가 邪氣를 몰아내는 힘이 부족한 경우로서 正邪相爭으로 인한 心煩의 발생으로 위의 조문은 후자에 해당한다.

2. 역대 의가의 연구

成無已 “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風府 却與桂枝湯則愈 卽此觀之 煩爲表熱 明矣”

陳修園 “太陽病, 審其爲桂枝證, 用桂枝湯, 照法煮取三升, 分三服, 若初服桂枝湯一升, 反煩不解者, 緣此湯只能治肌腠之病, 不能治經脈之病, 治其半而遺其半故也, 宜先刺風池, 風府, 以瀉經中之熱, 却與留而未服之桂枝湯二升, 照法服之則

愈.”

徐靈胎 “此非誤治, 因風邪疑結于太陽之要路, 則藥力不能流通, 故刺之以解其結. 蓋風邪太甚, 不僅在衛而在經, 刺之以泄經氣.”

魏念庭 “恐人認此煩爲已傳裏之躁煩, 故標出以示人, 言不解, 則太陽之證俱在. 但添一煩, 知其非傳裏之煩, 而仍爲表未解之煩也”

方中行 “此仍默愈人以救服湯不如法, 發汗不如經, 因而生變者之微旨, 讀者當以意逆, 斯則得之, 毋徒影射可也. 蓋桂枝全在服法, 發汗切要如經, 若服不如法, 汗不如經, 『經』曰, “病必不除”, 豈惟病不除, 風愈得入而愈變劇, 所以反煩, 反, 轉也, 言轉加熱悶也. 先刺風池, 風府者, 預爲杜塞風之門路也.”

柯韻伯 “桂枝湯煮取三升, 初服煮, 先服一升也, 却與者, 盡其二升也. 熱鬱于心胸者謂之煩; 發于皮內者謂之熱. 麻黃證發熱無汗, 熱全在表; 桂枝證發熱汗出, 便見內煩. 服湯反煩而外熱不解, 非桂枝湯不當用也, 以外盛之風邪重 內之陽氣亦重耳. 風邪本自項入, 必刺風池風府, 疏通來路, 以出其邪, 仍與桂枝湯以和營衛.”

喻嘉言 “中風之證, 凡未傳變者, 當從解肌, 捨解肌無別法也. 然服桂枝湯以解肌, 而反加煩悶者, 乃服藥時不如法也, 其法維何? 卽斂稀熱粥以助藥力, 不使其不及, 但取周身繫繫微似有汗, 不使太過之謂也. 此云服湯反煩者, 必微似汗亦未得, 肌竅未開, 徒用藥力引起風邪, 漫無出路, 勢必內熱而生煩也. 刺風池, 風府, 以瀉風熱之暴甚, 後風不繼, 庶前風可熄, 更與桂枝湯引之外出則愈矣”³⁾

張隱庵 “風池, 風府 雖非太陽穴道, 乃屬太陽經脈所循之部署 故 刺之以解太陽之病”

成無已는 煩이 表熱임을 밝힘에 그쳤고, 陳修園은 經脈에 병이 있다는 사실만 언급하였으며, 徐靈胎는 風邪가 太陽의 要路에 응결되었다고 하였다. 魏念庭은 煩이 나타나는 것이 裏의 문제가 아님을 밝혔고, 方中行은 風邪가 안으로 더욱

2) 申營日, 金善鎬. 國試傷寒論.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26 ~ 27

3) 全國韓醫科大學 傷寒論教材 編纂委員會 : 傷寒論精解, 서울, 一中社, 2003, p 94 ~ 96

들어감에 더욱 變劇하여 煩이 생겼다고 하였다. 柯韻伯은 風邪가 項으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刺鍼한다고 하였으며, 喻嘉言은 桂枝湯 복용시 法대로 하지 않아 熱이 발생하여 風池, 風府로 風熱의 暴甚을 瀉한다고 하였고, 張隱庵은 風池穴과 風府穴이 비록 太陽經脈의 穴은 아니지만 太陽經脈이 지나는 부위이므로 刺鍼하여 太陽之病을 解한다고 하였다.

이상 여러 의가의 학설을 살펴보면, 刺鍼하는 것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의가도 있으며, 조금 언급한 의가도 있었는데, “風邪가 경맥에 침범하였으니 刺鍼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風邪는 項으로 들어가니 風池와 風府를 刺鍼하여야 한다.”라고 한 의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鍼灸治療에 있어 단순한 近位取穴의 의미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3. 風의 성질

『傷寒論』 24조문은 太陽中風證으로 風邪가 인체 내 침범한 경우로 風邪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風邪는 陽邪로 그 性質은 開泄하고 陽位를 쉽게 침습한다⁴⁾.

風은 대기의 격렬한 흐름으로, 정상적이며 적당한 風은 만물을 長養시키지만, 바르지 못한 虛邪賊風일 때는 만물을 해하고 致病要素가 된다. 陰陽의 속성에서 보면 잘 動하고 升發하며 向上, 向外하는 특징이 있어 陽邪라고 할 수 있다. 風邪는 腠理를 疏泄하고 開張하니 汗出惡風의 증상이 나타난다. 『素問·風論』에서 “風氣藏于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 腠理開則洒然寒, 閉則熱而悶”⁵⁾이라고 하였고, 『靈樞·刺節眞邪』에서 “虛邪之中人也, 洒淅動形, 起毫毛而發腠理. … 搏于肉, 與衛氣相搏, 陽勝者則爲熱, 陰勝者則爲寒, 寒則眞氣去, 去則虛, 虛則寒, 搏于皮膚之間, 其氣外發腠理, 開毫毛”⁶⁾라고 하였다. 그러므

로 風邪가 外感되면 發熱, 汗出, 惡風의 증상이 나타난다. 風邪는 陽位를 침습하여 인체의 上部, 陽經, 肌表에 영향을 미치므로 頭痛, 汗出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므로 『素問·太陰陽明論』에 “故犯賊風虛邪者, 陽先受之”, “傷於風者, 上先受之”⁷⁾라고 하였다.

2) 風邪는 善行하고 數變한다⁸⁾.

『素問·風論』에서 “風者, 善行而數變”⁹⁾이라고 하였다. 善行이라는 것은 風이 본래 氣의 극렬한 운동이므로 발병 부위가 자주 변하는 특징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致病이 될 경우 흔히 病位가 游移하고, 고정된 부위가 없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痺症은 風寒濕 三氣가 섞여서 致病한 것이다. 數變이라는 것은 『素問·風論』에서 “風無常方”이라고 지칭하였듯이 風邪가 여러 종류의 病證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風邪가 發病하면 흔히 신속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 風邪는 百病의 長이다¹⁰⁾.

『素問·風論』에 “風者, 百病之長也. 至其變化, 乃爲他病也. 無常方, 然致有風氣也”¹¹⁾라고 하였다. 風邪가 六淫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며, 人體에 쉽게 適中하는 邪氣이며, 寒, 濕, 燥, 熱, 火 등의 邪氣가 모두 風氣에 依附하여 인체에 침입함을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外感風寒, 風熱, 風濕, 風燥, 風火 등이 해당한다.

이상에서 風은 ‘風爲陽邪 其性輕揚發泄 易襲陽位’의 성질이 있어 風邪가 인체에 침입하였을

4) 羅昌洙 外 : 한의학 총강, 서울, 醫聖堂, 2001, p. 441

5) 李慶雨 :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3권,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 45

6) 金善鎬 : 善乎靈樞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 322 ~ 323

7) 李慶雨 :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2권,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 319

8) 羅昌洙 外 : 한의학 총강, 서울, 醫聖堂, 2001, p. 442

9) 李慶雨 :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3권,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 45

10) 羅昌洙 外 : 한의학 총강, 서울, 醫聖堂, 2001, p. 442.

11) 李慶雨 :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3권,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 45.

때에는 인체의 上部 및 頭部에 風邪가 쉽게 침범하고 모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 『周易·設卦傳』에서는 “乾健也 坤順也 震動也 巽入也 坎陷也 離麗也 艮止也 兌說也. 乾爲馬 坤爲牛 震爲龍 巽爲雞 坎爲豕 離爲雉 艮爲狗 兌爲羊. 乾爲首 坤爲腹 震爲足 巽爲股 坎爲耳 離爲目 艮爲手 兌爲口. 巽爲木 爲風 爲長女 爲繩直 爲工 爲白 爲長 爲高 爲進退 爲不果 爲臭 其於人也 爲寡髮 爲廣頰 爲多白眼 爲近利市三倍 其究 爲躁卦”¹²⁾라고 하여 風의 入하는 특성을 설명하였다.

4. 風池穴과 風府穴

1) 風池¹³⁾

【穴名】風邪가 침입하여 邪氣留滯한다는 穴이다.

【部位】外後頭隆起 直下の 凹陷部와 乳樣突起의 사이, 風府穴(GV16) 外傍으로 枕骨下陷 中

【取穴】俯頭取之

【鍼法】直刺 3分~1寸, 留 5呼, 鍼尖을 對側 眼球方向으로 刺入, 斜刺 5分~1.5寸

【穴性】調氣血, 祛風解表, 疏邪清熱, 清頭開竅, 明目益聽, 利機關

【主治】頭痛, 頭顫顫動, 頭暈, 目眩, 偏頭痛, 流行性感氣, 眩暈, 中風, 目不明, 迎風有淚, 落枕

【參考】三焦經·陽維脈·陽蹻脈 交會穴, 陽蹻脈 終止穴

【注意】內部の 中央에 延髓가 있으므로 深刺 해서는 안된다.

【Note】患部周圍穴-頸項, 眼疾患, 頭痛, 陽蹻脈의 疾患, 外感疾患, 中風에 응용

2) 風府¹⁴⁾

【穴名】“風”은 風邪, “府”는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風邪가 이곳에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異名】舌本, 鬼枕, 曹溪, 鬼穴, 鬼林, 熱府, 鬼本

【部位】後髮際上 1寸

【取穴】正坐微仰頭

【鍼法】不宜深刺(深部爲延髓)

【主治】流行性感氣, 項強(⊕ 後谿, 申脈), 頭痛, 鼻塞, 鼻衄, 半身不遂, 中風, 精神分裂症, 精神病(⊕ 大椎, 陶道, 內關), 舌緩不語

【治療解說】風邪와 그 隨伴症狀을 治療한다. 鼻疾患, 腦出血, 高血壓에도 有效한 穴이다.

【配穴】⊕ 百會 治風疾; ⊕ 鬲交 治頸項急不得顧; ⊕ 百會, 太陽 治頭痛

【參考】膀胱·陽維脈 交會穴, 頭面部·五官科病症에 常用되는 穴中的 하나

【Note】제반 風疾患에 應用; 頭痛 基本穴 → 合谷(LI4); 風府 → 風熱, 後頭痛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風池穴과 風府穴은 ‘風邪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風池와 風府라고 명칭 하였음을 알 수 있고, 效能과 主治를 보아도 風을 다스릴 수 있는 대표적인 穴자리임을 파악할 수 있다.

III. 考察

1. 太陽中風證과 奇經八脈의 관계

奇經八脈이란 용어는 『難經』에서 최초로 등장하는데, 『靈樞』의 「五音五味」, 「脈道」, 「逆順肥瘦」, 「海論」, 「動輸」 『內經』의 「骨空論」, 「氣府論」, 「痿論」 등에 흩어져 나오는 12正經이외의 八脈을 모아서 『難經』에서 최초로 ‘奇經八脈’이라고 명명하였다.

『難經·28難』에서 “其奇經八脈者, 既不拘於十二經, 皆何起何繼也? ... 比於聖人圖設溝渠, 溝渠滿溢, 流於深湖, 故聖人不能拘通也, 而人脈隆盛, 入於八脈而不環周, 故十二經不能拘之. 其受邪氣, 畜則腫熱, 砭射之也.”¹⁵⁾라고 하여 奇經八

12) 金碩鎭 : 大山 주역강의3, 서울, (주)도서출판한길사, 2001, p. 356~372.

13) 崔容泰 外 : 針灸學 上, 서울, 集文堂, 2001, p 632 ~ 633.

14) 崔容泰 外 : 針灸學 上, 서울, 集文堂, 2001, p 702 ~ 703.

15) 尹暢烈, 金容辰 :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脈의 역할을 도랑과 호수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奇經八脈은 經絡의 氣血에 대하여 滲灌하고 溢蓄하는 調節作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체에 침입한 風邪가 表部에서 盛하면 당연히 물이 넘쳐 호수로 흘러들어 가듯이 風邪 역시 넘쳐서 奇經八脈으로 넘쳐서 흘러 들어가게 된다. 『傷寒論』 24조문은 風邪가 表部에서 盛하여 발생하는 병증에 해당된다. 따라서 奇經八脈으로 넘치게 된 風邪는 『難經』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鍼으로 刺鍼하여 풀어줘야 함을 알 수 있다.

2. 奇經八脈과 風池穴, 風府穴의 관계

『靈樞·熱病』에서 “風池는 足少陽膽經에 속하며, 足少陽經과 陽維脈의 交會穴이다.”라고 하였으며, 『甲乙經』에서는 “風池는 頰顙의 뒤 髮際의 가운데에 있으며 足少陽膽經과 陽維脈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靈樞·本輸』에선 “風府는 督脈에 속하며, 督脈과 陽維脈의 交會處이다. 異名으로는 舌本, 曹溪, 惺惺, 鬼枕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針灸聚英』에선 “風府는 足太陽膀胱經과 督脈, 陽維脈이 만나는 곳이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으로 살펴보면 風池穴은 足少陽膽經·陽維脈·陽蹻脈 交會穴, 陽蹻脈終止穴이고, 風府穴은 足太陽膀胱經·陽維脈·督脈이 만나는 곳으로 風邪가 잘 모이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또, 『奇經八脈考』에서는 陽維脈은 “陽維於諸陽之會, 其脈發於足太陽의 金門穴, 在足外果下一寸五分, 上外果七寸, 會足少陽於陽交, 爲陽維之郛. 循膝外廉, 上髀厭, 抵少腹側, 會足少陽於居膠, 循脇肋, 斜上肘, 上會手陽明 手足太陽於臂臑, 過肩前, 與手少陽 會於臑會天膠, 却會手足少陽足陽明於肩井, 入肩後, 會手太陽陽蹻於臑俞, 上循耳後, 會手足少陽於風池, 上腦空, 承靈, 正營, 目窓, 臨泣, 下額, 與手足少陽陽明 五脈, 會於陽白, 循頭, 入目, 上至本神而止. 凡三十二穴”

이라 하였고, 陽蹻脈은 “陽蹻者 足太陽之別脈 其脈起於跟中, 出於外踝下 足太陽申脈穴, 當蹻後, 逸跟, 以僕參爲本, 上外踝上三寸, 以附陽爲郛. 直上循股外廉, 循脇後胛上, 會手太陽 陽維於臑俞, 上行肩膊外廉, 會手陽明於巨骨, 會手陽明少陽於肩髃, 上人迎, 夾口吻, 會手足陽明 任脈於地倉, 同足陽明 上而行巨窞, 復會任脈於承泣, 至目內眥, 與足手太陽 足陽明 陰蹻, 五脈 會於睛明穴, 從睛明上行入髮際, 下耳後, 入風池而終, 凡二十三穴”이라 하였으며, 督脈은 “其脈起於腎下胞中, 至於少腹, 乃下行於腰橫骨, 圍之中央, 繫溺孔之端, 男子循莖下至篡, 女子絡陰器合篡間, 俱繞篡後屏翳穴. 別 繞臀 至少陰與太陽, 中絡者, 合少陰, 上股內廉, 由會陽, 貫脊, 會於長強穴, 在骶骨端. 與少陰會 並脊裏, 上行, 歷腰俞, 陽關, 命門, 懸樞, 脊中, 中樞, 筋縮, 至陽, 靈臺, 神道, 身柱, 陶道, 大椎, 與手足三陽會合, 上瘕門 會陽維, 入繫舌本 上至風府, 會足太陽 陽維, 同入腦中, 循腦戶, 強間, 後頂, 上巔 歷百會, 巔頂, 顛會, 上星, 至神庭, 爲足太陽 督脈之會, 循額中, 之鼻柱, 經素膠, 水溝, 會手足陽明 至兌端, 入齶交, 與任脈 足陽明, 交會而終, 凡三十一穴”¹⁶⁾이라 하여 각각의 奇經八脈의 노선 및 風池穴과 風府穴의 交會處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여 奇經八脈과 風池穴, 風府穴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3. 이상의 내용 종합 및 문헌적 근거

『傷寒論』에서 太陽病은 크게 太陽經病과 太陽腑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太陽經病은 太陽經脈이 病을 받은 것으로 太陽經은 一身의 外表를 主하기 때문에 外邪가 인체에 침범할 때 가장 먼저 太陽을 통과하게 된다. 따라서 外感風邪가 침범한 太陽中風證은 風邪가 太陽經에 침범했음을 알 수 있는데, 風邪는 風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체의 上部 및 頭部에 風邪가 쉽게 침범하고 모이게 된다.

게다가 『傷寒論』 24조문에서처럼 外感風邪가 심하게 적중하게 되면 奇經八脈으로 邪氣가 넘

치게 되는데 奇經八脈으로 넘친 風邪는 특히 足少陽膽經·陽維脈·陽蹻脈 交會穴, 陽蹻脈終止穴인 風池穴과 足太陽膀胱經·陽維脈·督脈陽維脈인 風府穴에 모이게 되어 鬱滯되므로 桂枝湯만으로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風池穴과 風府穴에 刺鍼하여 鬱滯된 것을 풀어주고 桂枝湯을 복용하면 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李時珍은 『奇經八脈考』에서 “此二穴乃陽維之會也 謂桂枝後 尙自汗發熱惡寒 其脈寸浮尺弱 而反煩 爲病在陽維 故 先鍼此二穴”라 하여 風池穴과 風府穴의 刺鍼은 바로 奇經八脈을 이용한 鍼灸치료임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역대 『傷寒論』을 연구한 의가들은 『傷寒論』 24조문을 설명함에 있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奇經八脈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못하고 鍼灸를 이용한 치료를 단순히 近位取穴의 의미로만 해석하였음을 볼 수 있다.

IV. 結論

지금까지 우리는 『傷寒論』 24조문, 風의 특성 및 奇經八脈, 그리고 風池穴과 風府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風은 『周易·設卦傳』에서 ‘巽은 入也라’고 하였고, ‘風爲陽邪 其性輕揚發泄 易襲陽位’의 성질이 있으므로 風邪는 인체에 잘 침입하며 침입하였을 때에는 인체의 上部 및 頭部에 風邪가 쉽게 침범하게 되고, 잘 모이게 된다.

2. 인체에 침입한 風邪가 좀더 表部에 盛하게 머물러서 桂枝湯의 藥力보다 더 세게 되면 『難經·28難』에서 언급된 인체의 호수인 奇經八脈으로 邪氣가 넘치게 된다.

3. 奇經八脈으로 넘친 風邪는 특히 足少陽膽經·陽維脈·陽蹻脈 交會穴, 陽蹻脈終止穴인 風池穴과 足太陽膀胱經·陽維脈·督脈陽維脈인 風府穴에 모이게 되어 鬱滯되므로 桂枝湯만으로 치유

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風池穴과 風府穴에 刺鍼하여 風邪의 鬱滯를 풀어준 다음 桂枝湯을 복용하면 병이 낫는다고 한 것이다.

參考文獻

1. 홍원식, 윤창열 :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p. 163 ~ 164.
2. 申營日, 金善鎬. 國試傷寒論.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p. 26 ~ 27.
3. 全國韓醫科大學 傷寒論教材 編纂委員會 : 傷寒論精解, 서울, 一中社, 2003, pp. 94 ~ 96.
4. 申營日, 金善鎬 : 懸吐完譯 傷寒明理論,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 77.
5. 李培生 :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p. 31 ~ 32.
6. 羅昌洙 外 : 한의학 총강, 서울, 醫聖堂, 2001, p. 442.
7. 李慶雨 :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3권,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 45.
8. 金善鎬 : 善乎靈樞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 322 ~ 323.
9. 金碩鎭 : 大山 주역강의3, 서울, (주)도서출판한길사, 2001, pp. 356 ~ 372.
10. 전국한의학대학교 병리학교실 : 한방병리학, 서울, 一中社, 2004, pp. 27 ~ 30.
11. 崔容泰 外 : 針灸學 上, 서울, 集文堂, 2001, pp. 632 ~ 633, 702 ~ 703.
12. 尹暢烈, 金容辰 :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521.
13. 오대진 외 : 中醫辭海,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9, p. 704, 707.
14. 大塚敬節 : 傷寒論解說. 강원도, 醫方出版社, 2004, pp. 157 ~ 159.
15. 朴旻 : 國譯 奇經八脈考. 大星文化社, pp. 135 ~ 138, 150 ~ 153, 180 ~ 182.